齊燮元氏의畫策

自由權士生存權的學問是

美安<u>哈</u>山一圣遗

公然以外

112(東京が少)をは人体であた。112(東京が少)をは人体では

一一一年每八以四年八人大量

발그만치 만호박하를 거니 의상배를 방지됨이 바다 좆런그르던하면간 남달이

)이된산십寿만평에 1 청분히 생각하야 여기

再燃軍用地問題

獨立軍

以別川川湖紀念

이십뒨이라더라

加置問題

데로 계작십일일 오퓐밀시부

은아레와갓다더라(디川) 前進四百米突

省省先

经》

警告近會主奏

員

會

委員会を写

派遣が川呂決定

施設の落着三天

或은不正한무리가 무엇에제 民心含蟲惡刑하였다 後者의例라할것이다

◇所謂疾病**设**防가른것은 - 거의但界에업는곳이업고 图 아니하다.그로인연하야 생 기지아니하아조혼不幸이만하 다할것이요 左道가成功하아 사라지는迷信이적지안고 無 波瀾分入の三키山のス은害 **기**] 二十二四件史上十字軍事件 도 嚴格하게일하면 迷信部 分이적지아니라다할것이다 그런우리나라에도 이러한前 例기업지아니하였스나 最近 에와서 그甚한程度가過한데 이르릿스니 時代의退嬰인가

◆中宗朝에 開城의松鷸大 | 즉 寺壁琵琶刀運物이라 祈 王の一國男女量道路列奔走一端計七八計のの目刊 케한일이잇첫다 그러나이것 라고하였다 그밥作은어이입 금지날뿐이요 朱干喜己宰相 内人心是願酬刊計以一宋觀察 을잡머쇠區刑하야、一境이關

는現象이라할것이다

H리 述信은疑心에胚胎 無智에蕃殖하는것이다

中에그厨夫가自己置죽이라한 다고말하며자주昏絕하니 夫 人이그죽이지아니함을말하나

발문고지듯지아니하고 連하 야나를살리라고 소리를질름 厨夫를한번보고病이나엇다한 中。이와가刘嶷心만置리면 土木金石鳥默虫魚才。모叶靈 生の旅行計と望め、어느寺院 에들어가니 마츰恰侶는눈에 보이지아니하는데 左右로俳 何計中가 偶然司壁上の琵琶 를그리고나갓성다。그後그밤 生の中川ユ寺院附近のの르り | 오고가고男女老少가 道路에 温荷합으로 怪異하여 물은

의害と近年蔡同知가言ス에る 分 ユ寺院에가外 年月日時 를말하야가며 自己가그린것 - 急説明討せば山蛮敬りに琵琶 가 그날부러無礙하게되역다 한다:無智률에우치면格제공 지못하는迷信이만하의다 が迷信正信區別が模糊社場の

야 数名을 세우고『홍치홍치』 와가를呪文을 오이는種類가 岡에橫行함은 近世에 취음 있

本



対からから の苦酸作列 い布を直自

通選學實施。對的現象

• •

· -----

能

=-+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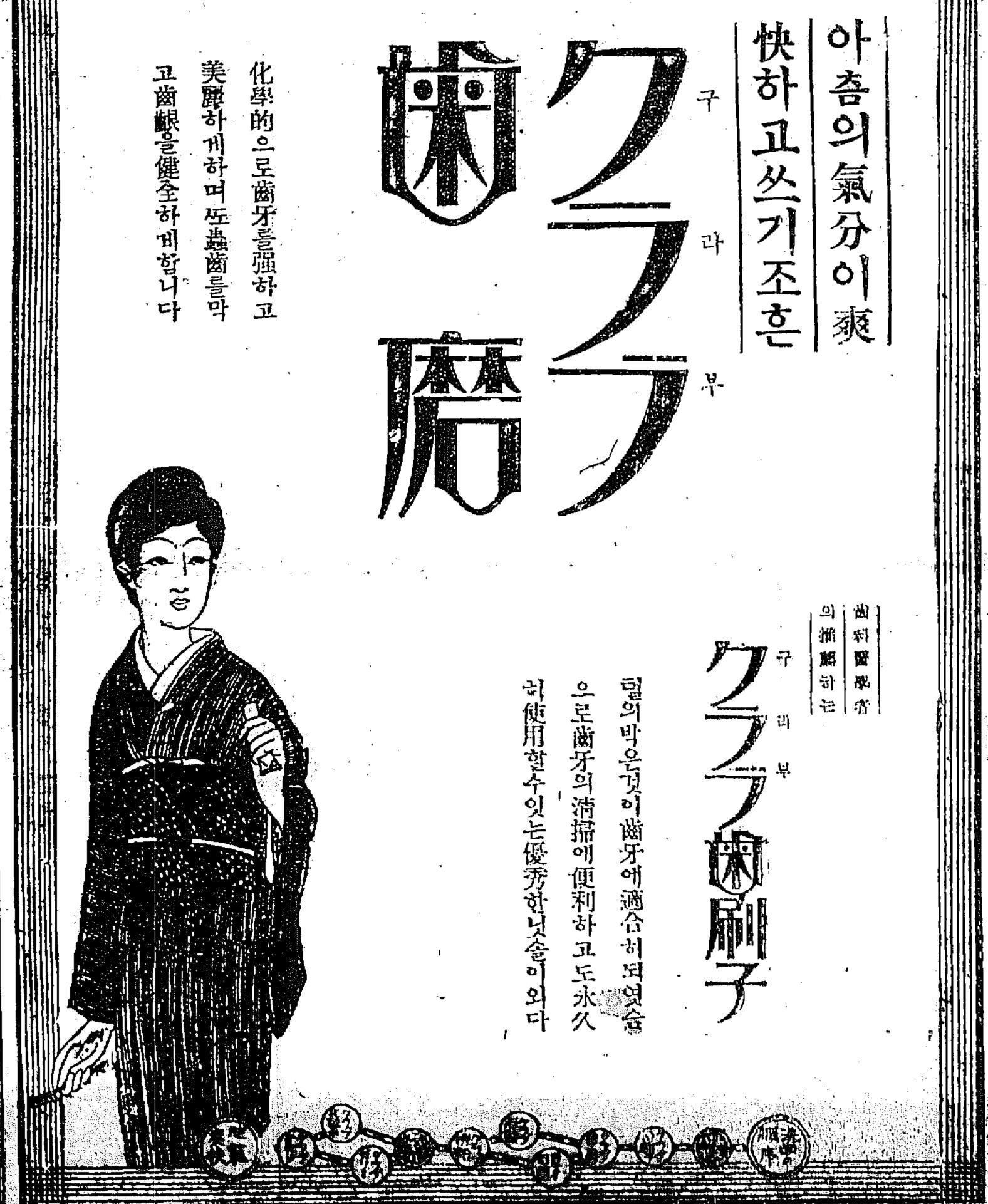
マルボカシンをである。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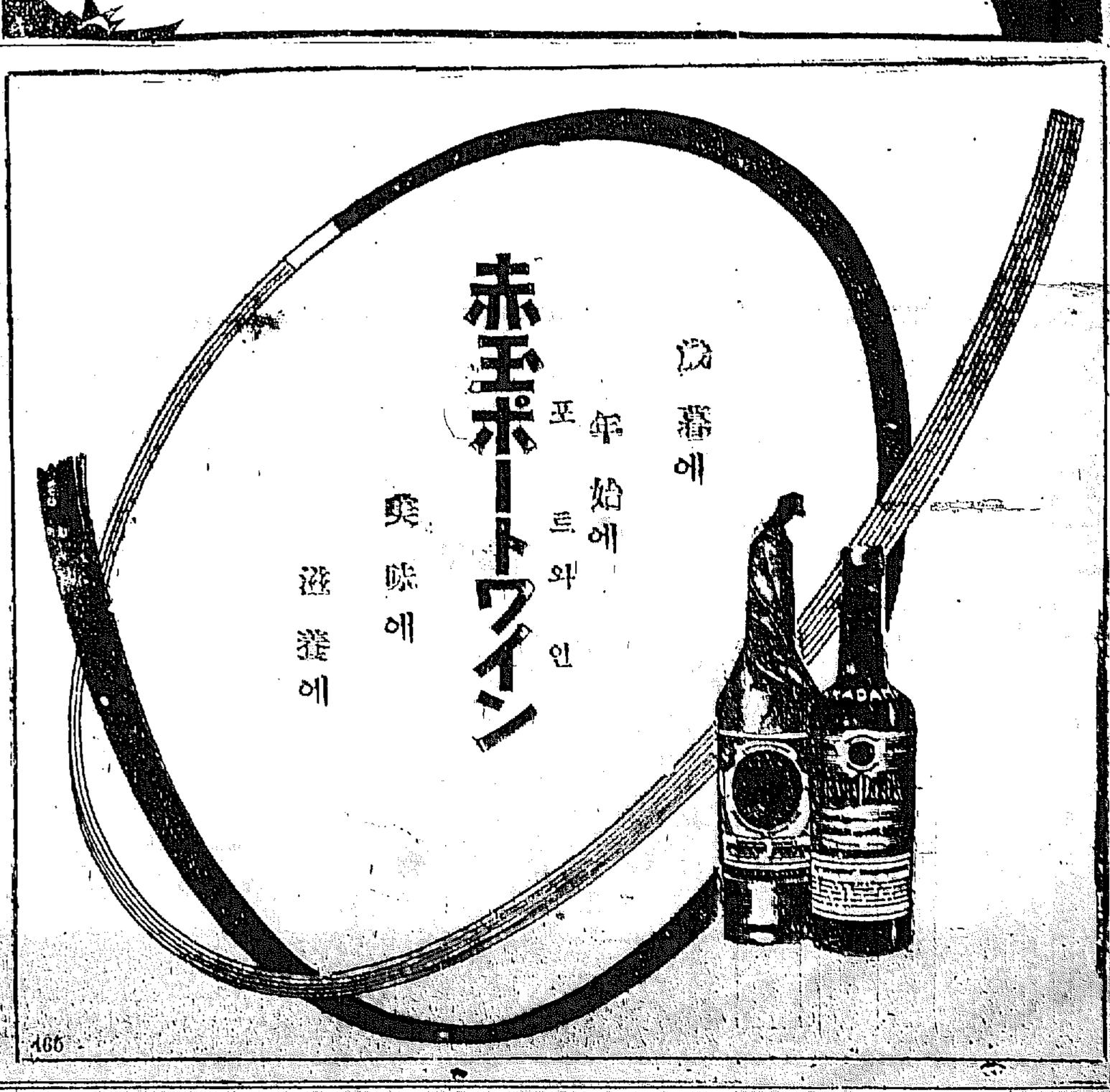
||過不利かに日

息 ø 豆 에

比類なこと効力 の速対薬 **今班通路 一旁长阳**

九九起空空九名^W 2九九空空九九头 a 允^W





3

· · · · · · ·

角 1星山 A

38.00.00